

오피니언

光日春秋

김승환



지난 주 독일의 드레스덴에 소재한 세계적 기관인 막스플랑크 복합계물리 연구소의 피터 폴레 소장이 한국을 다녀갔다.

은 학자의 육성 등 연구소가 소재한 지역의 대학과 모범적인 원원 협력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막스플랑크와 드레스덴의 교훈

더 나아가 사회 과학을 망라하는 대중적 관심 분야에서 '하나의 원리'에 따라 세계 최고기를 지향하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1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막스 플랑크는 '양자역학의 창시자'이자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손꼽힌다. 그는 노벨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는 등 음악적 재능도 매우 뛰어났지만 물리학을 선택했다.

메우먼 된다"고 조언하며 그를 맞았다고 한다. 막스 플랑크는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 없이, 단지 이 분야의 기초를 이해하자"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이론 물리를 하다 보니 기대를 훨씬 넘게 되었다.

노벨상에 걸출 수 있는 막스플랑크의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은 바로 막스플랑크 재단을 만든 것이다. 막스 플랑크 재단과 연구소 시스템은 독일의 과학기술 뿐

기초연구 분야의 3 개의 막스플랑크 연구소, 응용기술 연구를 위주로 하는 10여개의 프라운호퍼 및 라이프니츠 연구소 등 신규 첨단 연구소 네트워크이다. 이제 드레스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과대학인 드레스덴 공대, AMD, 토란, 인피니온, 폭스바겐 등 수 많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첨단 벤처 기업의 창업 및 이전, 그리고 지멘스의 테크노 파크 설립 등으로 이상적인 연구소, 대학, 기업, 테크노파크의 클러스터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막스플랑크와 드레스덴 시스템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연구 시스템과 지원 방향에 대해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1944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오토 한은 "발견은 보통 가장 쉬운 길이 아니라 가장 복잡한 길로부터 나온다."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노연구센터〉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대형유통업체 지역사회 공헌도 높여야

롯데쇼핑이 롯데슈퍼가 향후 유통업체인 빅마트로부터 인수할 광주 문흥점과 양산점, 목포 하당점, 영암 한마음회관점, 전주 삼천점 등 5개 매장을 16일 오픈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진출은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고용창출, 지방세 수입 증대 등 일부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붕괴와 자급의 역외 유출 등 2개의 역외 순기능 못지 않다.

문제는 지역상권을 장악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공헌도는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매일 엄청난 매출 현금을 서울로 송

금하면서도 지역 투자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지역사회는 아랑곳하지 않는 대형유통업체의 '나 홀로 영업'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상권의 초도화를 막기 위해 지역업체 제품의 납품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역상권의 초도화를 막기 위해 지역업체 제품의 납품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 인쇄물 및 영역 서비스의 지역발주, 지역금융 이용, 기업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이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공익마케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더욱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18 계기수업' 교육부 지침 황당하다

교육부가 '5·18 계기수업'과 관련, 삼석박의 장학지침을 내려 과문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의 일부 수업내용이 부적절하며 차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5·18 단체와 전교동등'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5·18민주항쟁'은 교과서의 용어가 아니므로 '5·18민주화운동' 등과 같은 근거 없는 표현은 불필요한 오탈미 유방할 수 있어 쓰지 말라는 것이다. '5·18'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명칭의 문제다. 교육부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건에 대해 특정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화계에서 '5·18민주항쟁'이란 용어가 통용되고 있고 5·18행사를 주관하는 위원회에도 '5·18민주항쟁기념사업위원회'

란 명칭이 붙어 있다. 4·19는 '혁명'이나 '운동'이나 등의 논란이 있고 제주도 '4·3사건'도 '항쟁'과 '사건' '폭동' 등이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5·16에 대해서도 '혁명'과 '쿠데타' '군사반란' 등 공식화된 명칭이 아직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최현대사의인 '5·18항쟁'에 대해서만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계획된 학살' 표현 금지 등도 납득할 수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분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킨 행위가 '학살'이 아니라면 무엇이던 말인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불법행위는 이미 재판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5·18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는 아직 미흡하다. 5·18의 전국화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부가 5·18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교육부는 이런 의문에 공식 해명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구상에 실전 배치돼 있는 항정 가운데 항공기나 미사일의 동시 다발 공격에 가장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이지스함이다. 수직 발사의 대형 미사일이 항공모함에 한꺼번에 발사되는 상황에 대비, 지난 60년대 후반 미국이 개발에 착수했다.

세종대왕함(艦)



여기에 우리 해군의 칼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는 뜻이다. 미 록히드 마틴사의 이지스 시스템은 최대 1천km 밖에서 수백 개의 항공기나 대형 미사일을 찾아내고 공격할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이 지난 1998년 북한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 계도를 완벽하게 추적한 것도 이지스함의 위력 때문이었다.

북한이 핵 무기 보유 선언을 하면서 내년 북한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 계도를 완벽하게 추적한 것도 이지스함의 위력 때문이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지스함 1척이 30척의 기동함대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 평가한다.

마침내 우리 해군도 이지스함을 갖게 됐다.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 이지스함 1호인 '세종대왕함(艦)'이 이달 말 인수

된다. 미국·일본·스웨덴·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5번째다. 세종대왕함은 미국을 제외하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춘 이지스함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종대왕함에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보다 32개나 많은 총 128개의 수직발사기를 갖추고 있다.

기고



김지수

빛고을 광주가 '5·18 민주화성지'에서 '문화수도'로 도약, 발전하려는 용기를 품고, '문화예술회관'과 별도로 '문화전당' 건설을 준비하면서, 이를 학문교육의 측면에서 전폭 지원하고 적극 선도하기 위하여 전남대에 '문화전대학원'까지 신설했다.

스럽기 어렵다. 더구나 심심한 도덕정신과 생명의 열(뿌리)이 없다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번영할 수 없으며, 당연히 문화예술의 꽃이 눈부시게 피어나길 기대할 수도 없다.

하나 그 실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눈빛이 강한 것

'문화수도'되기 전에 도덕부터

도 사실이다. 이에 우리 '전통 문화론'을 통해 현실의 '문화정책'을 반성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들 게 아니라, 과연 진정 후대역사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남을 문화유산의 창조할 만한 도덕정신과 시대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지닌 것인지, 먼저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공자의 문화예술관은 "빛나는 문화 예술은 심심한 도덕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문화수도'와 '문화전대학원'이 명실상부하게 잘 확립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무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5·18 영령들과 '문화예향'의 명성을 남기신 선조들께도 커다란 오명과 모욕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공자의 문화예술관은 "빛나는 문화 예술은 심심한 도덕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의 가치와 경제의 잇사귀 속에 피어나는 꽃이다. 안정된 정치(가치)와 넉넉한 경제(잇사귀)가 없으면, 거기서 피어나는 문화예술의 꽃이 탐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도덕정신'과 '예술혼'으로 참회하고 자아혁신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히 빛고을의 빛을 더욱 밝게 보태어 떨치지길 간절히 기원한다.

〈전남대 법대 부교수〉

캠퍼스내 대학생 차량 음주운전 지나치다

대학생들의 캠퍼스내 음주운전이 심각하다. 학생들끼리 누군가 경찰관이나 밤에 누닷 없이 음주 축제를 가지고 교내에 들어와 단속을 벌인다면 무더기로 걸릴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다가오는 차량에 놀란 적이 있다. 아예 교내 게시판 곳곳에 학교측이 음주운전을 삼가해 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놓은 경우도 많다고 한다.

기고



유태명

과학기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과거 관행이나 습관에 의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분, 막힌 빗물받이나 도랑, 배수통 등을 제쳐두고 눈에 보이는 곳만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임시방편식으로 그 순간만을 모면할 뿐이다.

다들 게 아니라, 과연 진정 후대역사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남을 문화유산의 창조할 만한 도덕정신과 시대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지닌 것인지, 먼저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찾아 낸 방안이 바로 '주민참여형 혁신 방역'이다. 서식처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 환경생태계 생활은 주민 참여 없이 불가능하다.

이 엄청난 변화만은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전통적인 방역문화에 고집스럽게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방역도 변해야 한다

종나로 변질되어 행정과 주민간의 소모적 논쟁만 불러 왔다.

없이 불가능하기에 주민 참여형은 더욱 생산적인 방역문화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한 경우에도 살포를 극히 제한하거나 최소화한다. 환경단체 등의 저항을 받기도 한다. 현재의 연막소독이나 공중살포방식이 전근대적으로 효과 측면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검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혁신방역은 소독법의 구체적 개선을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동구는 크게 세 가지의 가치를 내걸었다. ▲친환경적 소독(환경개선·살충제 살포의 최소화·미생물 억제·천적이용 등) ▲보건 과학적 접근(발생원 제거·모기 활동 습성 이용·약제내성 관리 등), ▲인간적 접근(살충제 사용 시 시민건강위험에 대한 배려 등)이다.

대안은 무엇일까? 기존의 성공을 찾아 죽이는 방식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이나 환경에 역작용 문제를 부재할 수 없다.

주민 참여라 해서 구형의 방역소독 업무 축소로 보는 것은 정당한 답이 아니다. 오히려 보건소 단독 업무에서 구와 동이 모두 참여하는 전사적 접근을 할 것이다.

집 주변에 널부러진 빈 강풍이나 페트 병, 빈병, 페타이어, 방치된 돌통, 화

자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이다. 서식처를 제거한다면 해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집 주변에 널부러진 빈 강풍이나 페트 병, 빈병, 페타이어, 방치된 돌통, 화

할 것이다. 올해는 전국체전이나 총장로 축제 등 굵직한 행사가 많다. 방문객들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동구가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혁신방역은 반드시 성공하도록 할 것이다.

〈광주시 동구청장〉

대학가 주변 원룸 분리수거 안해 악취 진동

대학가 주변 원룸에는 학생들이 많이 산다.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반 야에 분리수거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 정해진 날 분리해 배출하는 상식 수준의 일조차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과연 지성인이라는 대학생이 할 일인가.

일부에서는 음식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 냄새가 더워지는 요즘에는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다. 또 쓰레기도 정해진 날,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고 있다.

자신의 집이 아니라 임의로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규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세를 내준 원룸 주인과 주변에 살고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수진·광주시 동구 남동